

Global Strategy Report

경제특구를 활용한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순 서

I .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 3	
II . 중앙아시아의 경제특구	5
1. 경제특구 추진배경 / 5	
2. 경제특구별 특성과 추진과제 / 14	
III . 경제특구를 활용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25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 25	
2. 중국의 경제특구 활용사례 / 33	
IV . 한국기업의 전략 시사점	38

요 약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경제특구 개발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자원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운용
 - * 카자흐스탄은 국영지주회사, 우즈베키스탄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원배분
- 경제특구는 외국자본과 기술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구를 통한 산업다각화 전략 적극 추진
 - * 카자흐스탄은 10개의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3개 경제특구에 세금면제 등 혜택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노력

□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전략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실크로드경제권' 구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과 자국 상품 수출루트 개척가속화
 - * 2000년대 에너지자원 확보 중심 정책에서 對중앙아시아 전략변화
- 중앙아시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투자를 통해 국가별 이익 최대화 목표
 - 우즈베키스탄은 생산기지화를 통해 내수시장 확보
 - 카자흐스탄은 물류 인프라 개선 및 프로젝트 투자로 EEU 등 지역 내 국가에 대한 수출 및 물류활용에 중점

□ 경제특구를 활용한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 우즈베키스탄은 임금수준이 낮고 특구활용에 따른 제품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현재대응 압력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중심을 둔 전략 추진
 - * 음식료, 가정용품 등 현지화 요구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대도시 인근 생산시설 구축
- 카자흐스탄은 경제특구의 비용절감 요인과 특화된 산업군을 활용하여 내수뿐만 아니라, EEU 및 주변 지역 수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생산전략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중앙아시아 경제정책의 변화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다각화 논의 전개
 - 카자흐스탄은 원유 등 천연자원 수출에 집중된 자국의 산업구조를 변화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책 시행
 -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통해 제조업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없는 정책에 한계
 - * 2000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했던 정책은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불변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은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 투자와 연계
 - 카자흐스탄은 2010년대 이후 ‘국가산업 혁신발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특구 내에 제조업 투자유치 노력
 - 우즈베키스탄도 2010년 이후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구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으로 정책 변화

□ 중앙아시아 경제특구의 역할 확대

-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의 중심지 역할 증대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2019년까지 계속되는 2단계 산업육성 정책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 및 투자유치정책 지속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특구 내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통해 산업화 가속화정책 추진

○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화 정책과 연계

-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는 투자유치를 통해 각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장기적 성장 추진 목적
 - * 비슷한 유형의 산업들을 집약적으로 모아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클러스터 산업의 핵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화로 산업간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

□ 중국의 중앙아시아 제조업 진출

- 중국의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은 에너지자원 확보에서 물류 등 인프라 개선 및 산업투자로 전환 중
 - 중국은 2000년대 중앙아시아로부터 원유·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운송루트 건설에 힘을 기울였으나 점차 인프라 개발 및 경제특구 중심의 산업투자로 무게중심 이동
 - 중국은 카자흐스탄과는 물류·운송 등 인프라 개발사업, 우즈베키스탄에는 제조업체들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

□ 중앙아시아 정부의 경제특구 육성배경과 목적 및 현황을 이해

○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황과 배경을 분석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 수출 의존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성장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제특구 활용

*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두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

- 각 경제특구별 특징 및 주요 특화발전 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기업 진출의 시사점 도출

□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경제특구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진출 배경과 현황을 분석

○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진출 배경을 분석

- 현재 중앙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과거의 진출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략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중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변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내에서 향후 추진되는 전략을 예측하고 시사점 도출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기업들의 경제특구 활용 진출 사례와 전략을 분석

- 양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투자진출 상황을

종합해 보고 중국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특구 진출에 투영되는지 분석

- 경제특구를 활용한 중국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시장별 진출 전략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전략의 공통분모와 합치점을 이끌어내고 함의를 도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운용과 중국의 경제특구를 통한 진출 전략의 공통적인 지향점을 분석하여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실용적 정보 제공

□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제시로 기존 연구보고서와의 차별점 모색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발전전략과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연계한 연구는 부재
- 중앙아시아의 경제특구에 관한 기존의 보고서는 중앙아시아 경제특구의 지정현황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도 결국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적 관점과 개별기업의 미시적 필요가 합치한다는 측면에 주목
- 본 보고서는 기존의 다수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정책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과의 합치점을 분석
-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 전략의 합치점이 경제특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연구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對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도출

II

중앙아시아의 경제특구

1

경제특구 추진배경

가.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프로그램

- 자원위주 성장정책에서 탈피한 제조업 육성정책
 - <카자흐스탄 2030> 정책의 폐기와 2013년 <카자흐스탄 2050> 정책의 도입으로 제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점 마련
 - * <카자흐스탄 2030> 정책은 자원중심 개발 정책이나 <카자흐스탄 2050> 정책은 자원의 선별적 개발과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2050> 정책의 조기 도입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중심이 제조업 육성임을 통한 산업다각화임을 재확인
- 국가 산업·혁신발전 촉진 프로그램 2010-2014
 - 동 프로그램은 2009년 6월 대통령령으로 인가되었는데 주요 목적으로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분야의 발전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산업부문의 발전 ▲산업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경제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선도적 중심지역 형성 등
 - 예산의 약 70%가 경제특구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수출장려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할당되어 경제특구 기반조성에 대부분의 예산투자
 -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非)원자재부문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데 국제적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혁신 클러스

터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발전 추진

○ 국가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2015-2019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는 ▲제조업 발전 촉진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와 효율성 향상 ▲비원자재 산업부문의 비중확대 ▲제조업 우선 분야의 기술 효율성 증대와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 기반마련 등
- 1단계 경제특구의 기반 조성에 이어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산업화 추진

□ 국영 지주회사를 통한 제조업 육성과 재원공급

○ 2013년 국영 지주회사인 ‘바이테렉(Байтерек)’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산업정책 집행과 자금 제공 및 운영·관리 추진

- 동 기관을 기반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을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에 배분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실현

*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바이테렉을 통해 주요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 통제권 유지

- 2015년 말 기준으로 바이테렉은 산하에 1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205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자금 제공과 행정적인 지원

* 바이테렉 산하의 주요 기관 중 정부의 제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다음의 ‘기술개발공사’,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3개 기관임.

< 그림 1 > 국영지주회사 바이테렉과 산하기업



- 기술 개발공사(Нац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를 통한 혁신자금 지원
 - 2003년 ‘국가혁신펀드(Национальны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фонд)’라는 명칭으로 창설하였으며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을 축적된 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지원
 - *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역할 수행
 - 201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지원 산업은 석유화학, 기계, 대체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분야가 많았으며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자금상환의 의무가 없음.
 - 2012년 기술 개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년 5월 국영 지주회사인 바이테렉 산하의 기업으로 등록
- 카자흐스탄 투자펀드(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를 통

한 신(新)산업지원과 부실기업 개선

- 2003년 5월에 설립되어 2011년 8월 정부의 신기술 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2013년 5월 바이테렉 산하 기업으로 등록
- 목재가공·교통·농업 등 주로 안정적이고 경기부침이 없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투자
 - * 201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보이는 산업부분은 목재가공 분야로 총 5개의 기업에 약 69억 텡게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교통 부분으로 58억 텡게 가량 투자
- 2014년 11월에 2023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략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는데, 첫째는 <비즈니스 로드맵-2020> 전략 수행의 지원으로 신(新)산업 비즈니스 지원
- 두 번째 과제는 각종 산업부문의 현대화와 국영기업의 많은 과제들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화된 부분을 효율화시키고 수익성을 개선
 - * 산업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발전이 더디거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개선수행 역할
- 카자흐스탄 개발은행(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을 통한 금융자원의 산업분배 효율화
 -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은 2001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공공투자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산업 인프라를 발전시켜 비자원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
 - 설립이후 2014년까지 약 13년간 총 86억 달러의 자금을 기반으로 약 75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제공
 -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제공이 주요 기능인 은행의 성격상 원유 등 자원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 * 주요 투자 프로젝트중 하나는 아티라우 경제특구 내 ‘국영산업·석유화학 테크

노파크(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에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산업(Kazakhstan Petrochemical Industries Inc.)’이 건설 중인 석유화학 공장에 대한 여신 제공이 있음.

나. 우즈베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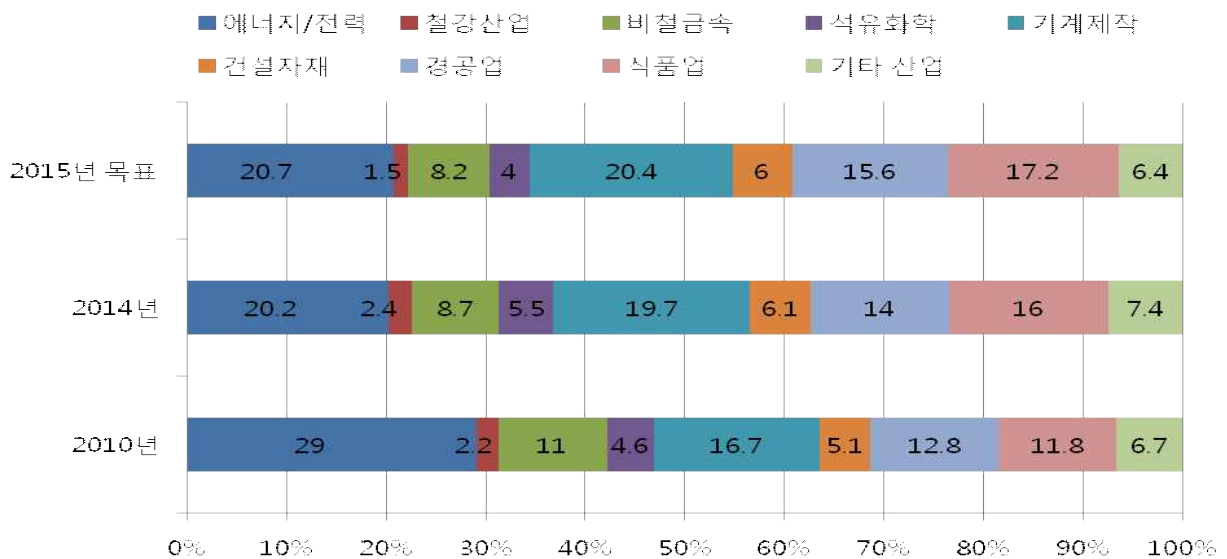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다수의 정책입안 및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도입

- 정부는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수의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정책 지원을 추진했으며 주요 안은 다음과 같음.
 - 2006년 8월 ‘과학과 기술부문 발전의 조정 및 개선을 위한 방안 (On measures to improve coordination and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에 대한 대통령령 436호
 - 2008년 7월 ‘제조업발전에 관한 혁신 프로젝트 및 기술 촉진의 부가적인 조치(On additional measures to stimulate innovative projects and technologies into production)’에 대한 대통령령 제 916호
 - 2011년 10월에는 ‘타쉬켄트 내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공동의 하이 테크놀로지 센터 설립(On creation of High Technologies Center in Tashkent with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of Great Britain)’에 관한 대통령령 제 1631호 등이 발효
- 2010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균형발전, 수출 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규 생산설비 도입을 목표
 - 산업현대화를 통해 산업생산량을 5년간 60% 이상 확대하고, 산업생산의 GDP 대비 비중을 2010년 24% 수준에서 2015년 28%로 상승목표로 추진
 - 에너지 분야 생산비중은 29%에서 20.7%로, 비철금속 생산은 11%에

서 8.2%로 축소, 기계류 생산비중은 16.7%에서 20.4%로, 경공업은 12.8%에서 15.6%로, 식품업은 11.8%에서 17.2%로 확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및 비철분야 의존을 줄이고 기계, 경공업, 식품 등의 다양한 산업부문 발전추진

< 그림 2 >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 추이와 정부목표



* 자료: 한홍렬 외, *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 *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5년 3월 4일 선진 기술 도입과 생산 현대화의 연속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2015-2019년 생산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을 대통령령(UP-4707)으로 공포

- 해당 기간 동안 총 846개의 생산기술 현대화 및 개발 프로젝트에 408억 9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여기에는 투자자 및 투자자금이 정해진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711개로 196.4억 달러이며, 외국인 투자 및 차관 유치가 필요한 유망 프로젝트가 135개로 211억 69백만 달러의 투자유치 추진

- 3,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지분 50%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외부 공공 인프라(전력 등)는 정부 재원으로 건설을 지원
- 동 프로그램 시행으로 GDP에서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부문이 급속히 발전시켜 산업부문에서 고부가가치 부문 생산 비중을 2014년 62%에서 2020년에 67%로 증가목표
- 2015-2019년 국산화 프로그램으로 수입대체화 정책 지속
 - 2015년 2월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화 정책의 강화를 위해 2015-2019년 완제품 생산 국산화 프로그램(PP-2298, 2015.02.11)을 승인
 - 600개의 광물 자원 가공 프로젝트와 1,225개의 제품 생산 프로젝트 포함
 - 동 프로그램의 실시로 매년 35억 달러, 5년간 총 175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되며 13,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이 밖에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발전 프로그램, 교통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에너지 절감·절전 기술 및 시스템 도입 방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도입

□ 정부의‘수입대체산업화전략(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Strategy)’*

- *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의 생산기반을 발전시켜 대체화함으로써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공업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로 신흥국에서 시행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산업 육성노력
 -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통해서 보호받는 산업은 동일 산업 내에서

해외 요인으로부터의 위협이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대외수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가시적인 빠른 산업화 달성가능

* 동 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왜곡현상 발생, 대량의 자본투입이 필요한 생산구조를 발생시키는 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부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동 전략을 채택한 것은 소비에트붕괴이후 다른 CIS 국가들과는 달리 ‘점진적인 사유화(gradual privatization)’의 경로를 밟으면서 자국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했기 때문

○ 동 전략의 추진을 위해 완제품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 자국으로의 수입을 억제

－ 수입산 완제품에 대해 높게 부과된 관세는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여 수입대체 및 자국 시장 보호 효과를 유도

－ 1995년부터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추진

< 표 1 > 1990년대 중반 우즈베키스탄 수입제품 관세율 변화(1995-1998년)

(단위: %)

구분	1995년 7월	1996년 3월	1996년 10월	1997년 10월	1998년 2월
평균 관세 (자동차 제외)	14	12	17	28	28
평균 관세 (자동차 포함)	18	16	21	29	29
최대 관세 (자동차 제외)	50	40	30	30	30
최대 관세 (자동차 포함)	100	100	100	100	100

* 자료: IMF, “Republic of Uzbekist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8/116*, October, 1998, p. 120.

- 정부는 이중환율제도의 용인을 통해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대체화전략 추진
 - － 정부의 공식환율은 시장의 비공식환율보다 낮아 공식적으로 환전되는 우즈벡 솜(Som)화 가치가 높아 중간재 수입에 유리
 - * 수입대체화공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는 자국 화폐를 시장 가격보다 고평가 상태로 유지하여 중간재 및 자본재로 수입되는 원재료와 반제품의 가격을 낮추게 하고 투자를 촉진

< 표 2 >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1999-2012년)

(단위: som/USD, %)

구분	99/00년	01/02년	03/04년	05/06년	07/08년	09/10년	11/12년
공식환율	168	635	992	1185	1293	1573	1850
시장환율	684	903	999	1175	1344	2101	2730
시장환율 프리미엄	308	173	1	-1	4	37	48

* 자료: Stephen MacDonald,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A Report from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October, 2012, p. 8.

- － 1990년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격차는 2003년 IMF의 권고로 환율정책이 통합되면서 축소되었으나 이후 정부가 공식환율을 다시 낮게 유지하면서 격차확대
- － 2016년 4월 현재 공식환율은 1달러당 약 2900솜(som)에 공시되고 있으나 시장환율은 그 두 배가 넘는 6000솜 이상에서 거래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및 이중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자국 내의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가.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 경제특구법 개정 및 특구 추가지정

-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은 1996년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2011년 7월 21일 법률 제 469-IV호로 최종 개정
- － 중·단기적인 정부의 산업화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
- － 전국에 총 10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별로 차별화된 산업육성 추진

< 표 3 > 카자흐스탄의 특구 지정현황

특구명	설립연도	지정기한	위치	면적	주요기능
Astana-New City	2001년 6월	2027년	아스타나	7,526ha	건설, 산업
Seaport Aktau	2002년 4월	2028년 1월	망기스타우	2,000ha	금속가공, 장비제작
Innovation Technologies Park	2003년 8월	2028년 1월	알마티	163ha	IT 혁신장비 제조
Ontustyk	2005년 7월	2030년 7월	남카자흐스탄	200ha	섬유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2007년 12월	2032년 12월	아티라우	3,475ha	석유화학
Burabay	2008년 1월	2017년 12월	아크몰라	370ha	관광

Saryarka	2011년 11월	2036년 12월	카라간다	534ha	금속가공
Pavlodar	2011년 11월	2036년 12월	파블로다르	3,300ha	석유화학
Khorgos－ Eastern Gates	2011년 11월	2035년	알마티	5,740ha	통상, 물류
Chemical Park Taraz	2012년 11월	2037년 1월	잠불	505ha	화학

* 자료: Kazakhstan: Special Economic Zones, 카자흐스탄 투자청

- －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의 본격적 조성은 하버드(Harvard)대학의 포터(Michael Porter) 교수가 주장한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2000년대 초반부터 수용하면서 부터이며 그의 이론이 기반이 되었음.

* 포터 교수의 클러스터(cluster)이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해당산업과 ‘연계되거나 지원 가능한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이 존재할 경우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 －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 여년에 걸쳐 카자흐스탄 전역을 통해 경제특구를 지정
 - 경제특구 내에는 각종 세금 면제 등 기업 대한 특혜를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촉진
- － 특구 내 기업의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 및 경제특구에서 사용되기 위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기업의 근로자 거주와 생활에 편의를 도모

□ 주요 경제특구의 특성과 중점추진 산업 분야

- 카자흐스탄의 10개 경제특구 중 4개 경제특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

-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의 아스타나 육성 계획에 의거한 다양한 산업분야 발전이 가능하며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파크 경제특구는 경제중심지인 알마티에 위치한 장점을 가짐.
- 최근 석유화학단지 조성으로 아티라우 경제특구의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특구임.
-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동 지역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수도 이전 이후,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지정
 -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997년 남부지역에 위치한 알마티(Almaty)에서 북부의 아스타나(Astana)로 수도를 이전
-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 중 가장 먼저인 2001년 지정되었으며 초기에는 수도로 지정된 아스타나시의 도시개발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그림 3 > 아스타나 경제특구 내 알스톰社 열차생산



* 자료: Alstom社 홈페이지

-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아스타나로의 꾸준한 인구유입, 지속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특구발전이 이루어졌음.

- 최근에는 건설 산업 위주의 특구발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철도차량 등 제조업 투자유치
 - * 프랑스 알스톰(Alstom)사가 투자한 전기기관차 생산 라인이 있으며 미국의 GM사도 기관차 생산
-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파크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IT 산업에 특화한 산업발전을 목표
 -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알라타우(Alatau)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차원에서 산업 단지를 조성한 최초의 사례로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IT산업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경제특구
 - 현재 특구 내에는 LCD TV, LCD 모니터, 컴퓨터, IT 서버, 전자기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
 - 특구의 지리적 위치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와 매우 인접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입주 기업의 시장접근성이 탁월
- 아티라우 경제특구는 원유·가스의 주요 생산지역인 카자흐스탄 서부의 카스피해 인근 아티라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화학 특화 경제특구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를 경제특구 내의 시설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특구 내에는 ‘카자흐스탄 석유화학 산업(Kazakhstan Petrochemical Industries Inc.)’이 건설 중인 석유화학공장이 있으며 이 공장은 총 사업비 약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약 5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생산을 목표
 - 또한 경제특구 내에 ‘아티라우 정유(Atyrau Refinery)’는 총 사업비 약

130억 달러를 들여 다양한 석유화학제품 생산 추진

< 그림 4 > 아티라우 경제특구 내 정유시설 전경



* 자료: Капитал, Tengri News

- 아티라우 정유는 1단계로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을 완공하였고, 2016년 내에 폴리에틸렌 생산이 가능한 2단계 공사를, 2018년 까지는 기타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3단계 공사완료 추진
-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 중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특구
-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와 중국의 국경이 접한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 물류 중심 경제특구
- 경제특구 내에 중국의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향후 서방과의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여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허브 역할을 하도록 추진
- * 바다와 면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의 대외 운송망 연결전략의 일부
- 특구 내에는 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시설 외에도 비즈니스 센터, 호텔, 물류창고, 전시회장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출 예정

< 그림 5 >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 전경과 물류망



* 자료: Транс-Экспресс Казакстан

- 호르고스-이스턴 경제특구는 중국 동부지역의 연륙강 인근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건설한 물류기지로부터 상품을 수집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이곳으로부터 유라시아 전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중심지가 됨.
- 2016년 말까지 연간 약 20만개의 컨테이너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 예정이며 2020년까지 연간 약 50만개의 컨테이너를 운용하도록 추진

나.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제조업 육성노력 지속

- 나보이 경제특구 지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단순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정의 신호탄

- 2008년 12월 2일 대통령령 No. UP-4059로 나보이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

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존 산업정책으로는 혁신적인 제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임.

- 경제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과 기술 유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존의 수입대체산업화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

< 표 4 > 우즈베키스탄의 특구 지정현황

특구명	설립연도	지정기한	위치	면적	주요기능
Navoi 자유산업경제구역	2008년 12월	2030년	나보이 시	564ha	제조, 물류
Jizzakh 특별경제구역	2013년 3월	—	시르다리아 지역	—	고부가가치 제조업
Angren 특별경제구역	2012년 4월	—	타쉬켄트 지역	—	고부가가치 제조업

*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부 홈페이지

- 3개 특구 모두 제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중점 유치 부문에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각종 혜택도 차이
 - 카자흐스탄이 총 10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전 국토의 균형적인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소수의 경제특구에 집중하되 특구별 특화추진
 - 3개 경제특구는 각 특구별로 외국인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화 된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유치 노력

□ 주요 경제특구의 특성과 중점추진 산업 분야

- 나보이 경제특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경제특구로 제조업과 함께 물류에 특화하여 발전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 면제
 - * 300만 ~ 1,000만 유로: 7년 / 1,000만 ~ 3,000만 유로: 10년 / 3,000만 유로 이상: 15년
 - ** 면제되는 세금은 토지세, 재산세, 법인세, 사회 인프라세 등
- 지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중심부인 사마르칸트(Samarkant)와 부하라(Bukhara)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 요충지로 제조업과 물류허브 기능을 동시에 추진
 - * 특구 반경 2,000km 이내에 11개 국가의 수도가 위치하는 등 나보이는 물류허브로서 인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제품 생산을 위한 천연자원도 풍부

< 그림 6 > 나보이 경제특구 국제공항과 터미널 전경



* 자료: Navoi Airport 홈페이지

- 나보이 경제특구의 국제공항 및 물류센터는 2009년부터 대한항공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나보이 물류센터를 유럽향 제품의 중가기착지로 활용하면서 시간·비용 절감효과 추진
- 지작 경제특구는 3개 경제특구 중 가장 최근인 2013년 3월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노력
- 지작 경제특구의 우선유치 제조업은 ▲전자·전자, ▲기계, ▲건축자재, ▲화학, ▲음식료, ▲의약 및 화장품, ▲가죽가공 등임.

《 우즈베크 정부의 주요 산업별 프로젝트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산업별로 육성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경제특구 내에 유치하고자 노력

< 표 > 주요 산업프로젝트 추진 목표

구분	주요 내용
전기·전자산업	- 전기기기 생산 가속화 및 첨단 기술 습득, 정보통신 기술 장비 및 부품 생산 시설 구축
기계산업	- 선진 업체와의 협작을 통한 농기계·트럭·부품 부문 국산화 및 수입 대체 농업 기계, 트럭, 부품 생산 관련 신규 시설 건설, 기존 시설 현대화
섬유·가죽·제화 산업	- 국내 원료의 심화 가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 (염색 원사, 원단, 무두질 가죽, 니트,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을 통한 상품 품목의 구조 개선

* 자료: 한홍렬 외, 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지작 경제특구에는 주로 중국 및 서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제품 현지생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수입관세를 회피
- 지난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중국-우즈베크 비즈니스 협의회 (Chinese-Uzbek Business Forum)’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이 지작 경제특구의 장점에 대해 발표한 이후 중국기업의 관심 증대
- 안그렌 경제특구는 2012년 제정되었으며 타쉬켄트 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제특구

- 안그렌 경제특구의 가장 큰 장점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 시에 인접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며 생산된 상품의 소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임.
- 안그렌 경제특구의 주요 투자 유치 품목은 제조업 전 부문에 이르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가운데서도 주로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희망

< 그림 7 > 안그렌 경제특구 전경과 조감도



* 자료: Angren 경제특구 홈페이지

《 경제특구의 유형구분 》

- 경제특구의 유형과 특징은 해당국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의 목적과 활용 방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존재
 -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수출가공지역은 국내의 수출주도형 생산자들이 면세된 원자재와 자본,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관련 특혜를 제공받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출확대·경제성장 목적으로 활용

< 표 > 경제특구의 구분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 주로 항구 연안에 위치하여 무역, 환적, 재수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 면적은 주로 50 헥타르(hectare) 미만의 작은 규모에 창고, 보관시설, 유통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전통적 수출가공지역 (Traditional Export processing zone)	- 해당 지역에서의 생산과 가공을 통해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 면적은 주로 100 헥타르 미만의 규모로 전 지역이 수출가공지역으로 지정됨.
복합형 수출가공지역 (Hybrid Export processing zone)	- 전통적 수출가공지역과 달리 전체 지역 중 일부만이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운영되어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과 가공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단일공장형 수출가공지역 (Single Factory Export processing zone)	-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개별기업들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자유항 (Freeport)	- 관광, 소매, 주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대해 폭 넓은 특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 통합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면적이 넓음.
기업지역 (Enterprise Zone)	- 주로 선진국에서 낙후된 도심이나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세금 면제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50 헥타르 미만의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자료: The World Bank,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April, 2008, pp. 10-11.

Ⅲ

경제특구를 활용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가.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전략

□ 2000년대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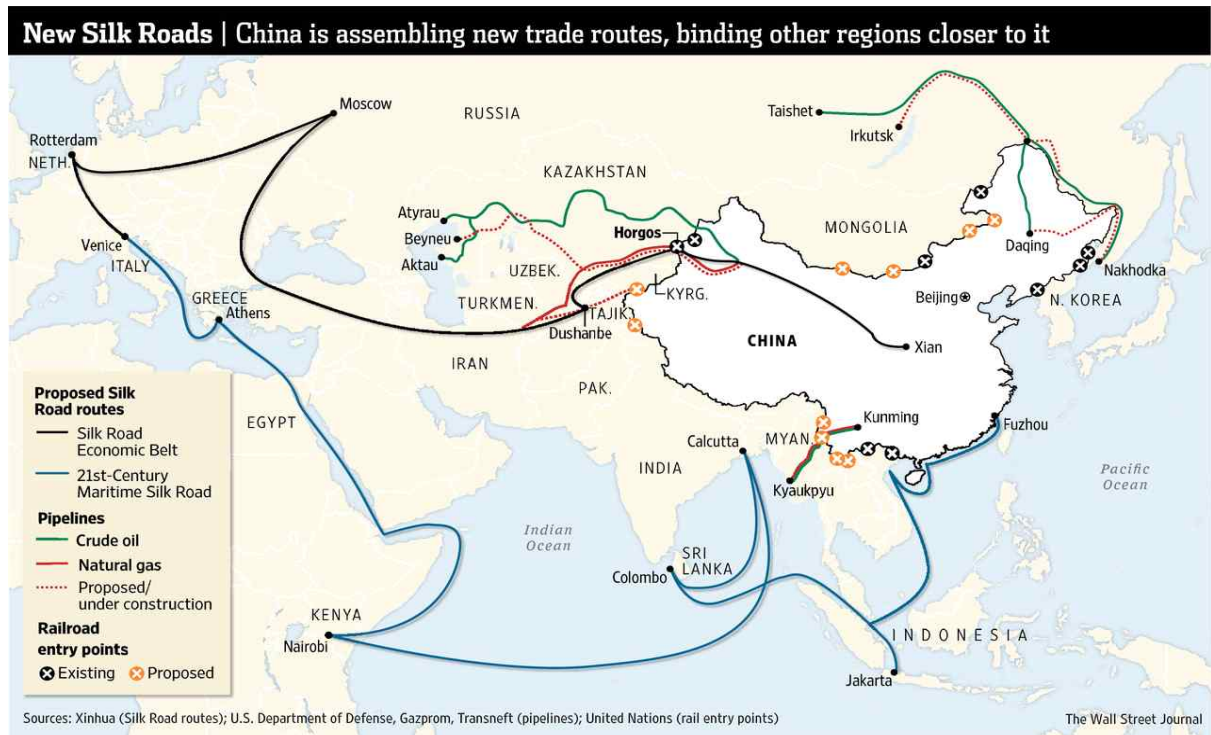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90년대부터 원유·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 확보를 對중앙아시아 우선과제로 설정
 - － 당시 중국은 에너지의 주요 수입처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카스피해(Caspian sea) 연안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천연가스가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주요 협력국
- 중국은 에너지수입원과 에너지 운송루트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목표
 - － 중국 내의 원유수급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자국 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 대외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
 - * 중국의 최대 원유생산은 ‘다칭(Daqing)’ 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내수요를 대응하기에는 부족
 - － 기존 중국의 에너지 수입루트는 해양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의한 안정성이 미확보
 - *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주로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최단 수입루트인 말라카 해협을 통한 운송로는 유사시 리스크 큼.

- 중국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확보와 육로운송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안 중 하나
 - 중국에게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통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육로운송이 중요한 과제
 - 1990년대 후반부터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카스피해 지역의 원유 개발과 운송루트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이후 투자국가와 대상을 확대
-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표면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
 -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소비에트 해체이후 강한 패권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하는 경향 잔존
 -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익을 경제적 관점으로 한정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패권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對중앙아시아 전략 변화

-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협력전략의 변화는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와 ‘실크로드경제권(silkroad economic belt)’구상에 잘 드러나 있음.
 - 시진핑 중국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시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하면서 해당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중앙아간 경제협력 정책 추진의지 재확인
 - 중국은 전략추진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서북 5개성과 서남 4개성을 포함
 -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연결 운송루트를 개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접근성을 강화

< 그림 8 >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루트



*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 중국의 對중아시아 경제협력 정책 변화

–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권을 통한 경제협력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안을 제시함. ① 정책협의 강화 ② 도로 등 운송여건 개선 ③ 무역장벽 완화 ④ 통화협력 확대 ⑤ 인적교류 증대

– 중국의 정책 가운데 2000년대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에너지 협력에 대한 부분은 제외 되었으며 중국의 본 정책 제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2단계 협력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중국의 1단계 협력전략은 에너지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목표로 했던 2000년대 전략을 의미

○ 중국은 도로 및 철도 연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운송인프라 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

- 도로를 기반으로 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연결은 ADB의 CAREC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축으로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 운송회랑’을 추진
- 철도의 경우, 중국은 ‘신유라시아 대륙교(New Eurasian Land Bridge)’ 건설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의 연운항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관통하여 유럽까지 연결하는 핵심 노선임.
-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자국 상품 수출활로 개척에 노력
 - 중국의 무역원활화 노력 또한 CARE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세관 절차 간소화 및 관세행정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세계은행의 ‘물류성과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역내 무역증대 기대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자원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 성립이 어려우며 제조업 분야가 강한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
 - 중국은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 특화된 산업을 협업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 추진
- 무역거래에서 중국 위안화의 통용화 확대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중 하나
 - 중국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위안화를 무역거래의 주요 통화로 만들고자 추진 중이며 가장 인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시험무대
 - 결국, 일대일로와 실크로드 경제권 실현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

나.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투자·통상

□ 2000년대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투자·통상

-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주요 투자는 에너지 부문의 개발과 운송루트 건설에 집중
 - 원유의 경우 주로 카자흐스탄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중국석유공사(CNPC)’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2003년 ‘아티라우(Atyrau)–알라산커우(Alashankou)’간 파이프라인이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원유수입
 - 2005년에는 중국석유공사가 대형 원유개발기업인 Petro Kazakhstan을 인수하는 등 이후 카자흐스탄 내 중소형 규모의 유전개발 가속화
 - * 카스피해 최대 유전인 ‘텅기즈(Tengiz)’, ‘카샤간(Kashagan)’ 유전 등은 개발초기 대형 국제석유기업(IOCs)들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진입 불가능
 - 천연가스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2009년 대형 천연가스 지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남 율로탄(South Yolotan)’지역 개발을 본격화 하는 등 투자확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역량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
 - 중국과 중앙아시아 전체 교역량은 2002년 약 24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까지 약 300억 달러 수준에 근접하는 폭발적인 성장세

< 표 5 > 연도별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교역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카자흐스탄	1,955.7	4,493.3	8,358.7	17,545.8	20,313.6
우즈베키스탄	131.6	575.2	971.9	1,607.8	2,477.3
키르기스스탄	201.8	602.2	2,225.8	9,335.1	4,169.0
투르크메니스탄	87.5	98.7	178.5	831.4	1,566.6
타지키스탄	12.4	68.9	323.7	1,499.9	1,413.2
합계	2,389.1	5,838.2	12,058.6	30,820.0	29,957.7

* 자료: KITA

-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 2010년 기준 약 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주로 카자흐스탄으로 부터의 에너지 수입과 공산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카자흐스탄-중국의 원유 파이프라인 개설 이후 카자흐스탄의 중국에 대한 원유수출은 2005년 일일 약 2만5천 배럴에서 2010년 20만 배럴까지 대폭 확대
- 기타 국가들에서도 중국의 주요 수입품은 에너지, 광물 등 천연자원이 대부분이며 중국의 수출품은 생활용품 등의 공산품이 차지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구조의 무역구조 성립
- 2000년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은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재수출과 ‘바자르(Bazaar)’ 무역이 특징
 - 중국은 국경이 인접하고 물류운송이 원활한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상품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재수출
 - *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제품 수입관세가 낮아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한 완제품을 중앙아시아 각국의 전통시장 격인 바자르를 통해 판매

- 중국 상품의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재수출은 2010년까지 키르기스스탄 전체 무역의 73%를 차지하면서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키르기스스탄 북부의 도르도이(Dordoi) 바자르와 남부의 아타수(Atasu) 바자르는 재수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무역 중심지로 성장
- 그러나 2010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성립되면서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중국제품의 중앙아시아 수출이 감소

□ 對중앙아시아 전략 변화이후 중국의 투자·통상 현황

- 중국의 對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2000년대와 2010년대의 투자 패턴이 상이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약 137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약 86.5%인 119억 달러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

< 표 6 > 연도별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직접투자 금액과 분야: 2005-2015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체	에너지	전체	에너지
2005 - 2010년	13,790	11,940 (86.5%)	1,070	880 (82.2%)
2011 - 2015년	13,760	10,290 (74.8%)	1,030	0 (0%)

* 주 : 괄호 안은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을 의미

*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에서 저자 계산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 검색일: 2016. 5. 9)

-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102억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74.8%까지 감소하면서 에너지 이외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10억 7천만 달러 중 82.2%인 8억 8천만 달러가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2011년부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
- 전략변화이후 중국기업의 對중아시아 투자는 에너지에서 다른 산업부문으로 다변화 추세
-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 중 에너지를 제외한 대표적인 투자는 2014년 ‘카자흐스탄 칼륨(Kazakhstan Potash Corporation)’에 대한 55억 달러 투자결정으로 이를 통해 칼륨비료 생산을 현재 1만 톤 수준에서 향후 7백만 톤까지 확대 예정
- 중국의 Sinomach 그룹은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지역에 러시아의 Eurocement과 함께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240만 톤 규모의 시멘트 생산 공장 건설 중
- 중국의 대 중아시아 교역금액은 2010년대 이후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 추세로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마무리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

< 표 7 > 중국의 연도별 對중아시아 교역금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카자흐스탄	12,536.7	15,967.8	12,718.3	9698.5	8,436.7	5839.9
우즈베키스탄	2,613.8	1,903.1	2,674.6	1,596.2	2,236.9	1,266.7

* 자료: KITA

-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상품 수출은 일정 수준이상 유지

□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특구: 태양열온수기 공장 설립¹⁾

- 경제특구 내 중국-우즈베키스탄 합작 태양열온수기 공장 완공
 - 우즈베크에네르고(Uzbekenergo)와 중국 항저우 중우 전자측정기 유한공사가 합작으로 2014년 9월 태양열온수기 생산기업을 설립
 - 합작기업은 연간 약 5만 대의 태양열 온수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제특구 내 생산시설 완공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관세우대 수혜
- 우즈베키스탄 국내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대안으로 태양열을 활용한 제품생산이 부각
 - 우즈베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 공급불안으로 인한 해결방안 모색과정에서 2013년 카리모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기업의 태양광 발전 투자 유치
 -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일조시간이 길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적 환경을 제공
- 지작 경제특구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태양광 발전 관련 우즈베키스탄 내수 시장과 중국기업의 시장 확대 필요성이 부합한 적절한 진출사례
 -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 구축으로 중국은 각종 혜택을 활용한 생산비용절감 및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중국 내부적으로도 자국 내에서 과잉생산의 징후가 보이는 태양열

1) 조정원, “우즈베키스탄-중국 합작기업 지작 공업특구 태양열 온수기 공장,” Emerics, 주간이슈 분석, 2014. 9.

온수기 생산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활로모색이 가능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 Telecom Innovations社

- 경제특구 내 중국-우즈베키스탄 합작 정보통신 제품 제조기업 설립
 - 나보이 경제특구 내 중국의 휴대폰 및 정보통신제품 생산기업인 ZTE 와 우즈베키스탄의 UzASI 가 합작하여 2010년 설립
 - 첨단 IT 산업의 발전이 더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보통신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업
- 정보통신 관련 다양한 제품군의 생산과 우즈베키스탄 내 판매가 목적
 - 주요 생산제품은 ADSL 모뎀과 TV Set Top Box 등이며 주로 중국 ZTE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짐.
 - 동사는 우즈베키스탄 내 국영통신기업인 Uztelecom 과 긴밀히 협력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의 모뎀 및 셋탑박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지작 경제특구: 기타 업체

- 나보이 경제특구와 지작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지작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가 많음.

< 표 8 > 중국의 지작 경제특구 투자기업

구분	Auto Pad Systems	Master Crew Syatems	Juita Gulshana Invest
중국 투자기업명	Urumchi Partnec Biotechnologi Co.Ltd	Xinjiand Nixan int '1 Logistics Co.Ltd	Zhejiand Juita Sewing Machine Co.Ltd
진출 시기	2015년	2015년	2015년
투자 금액	4백만 달러	4백만 달러	3백만 달러
산업 분야	차량용 브레이크 패드	철제 프로필	재봉틀

- 중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철저한 시장중심의 생산시설 투자를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

- 동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중국 간 경제협력과 물류인프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투자 확대 중
-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는 카자흐-중국 국경선 세관 통관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카자흐-중국 간 협력센터인 'Khorgos' (MCPS-Khorgos; International Centre for Cross-Border Cooperation)를 설립하여 운영
-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프로젝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2015년 운송·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에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동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물류투자 확대
- 향후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물류 및 생산 프로젝트 확대 예상
- 현재 특구 내에 중국 기업과 수출입무역 및 계약물류 관련 5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10개 프로젝트가 검토 중에 있음.
- 2016년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총 565억 달러 투자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도로·철도·운송 등 물류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예정으로 동 경제특구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

□ 카자흐스탄 악타우 항구 경제특구

- 악타우 항구 경제특구에 약 400헥타르(약 121만 평) 규모의 중국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계획
- 100헥타르(약 30만 평) 규모의 1차 단지는 중국 신장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 'Xinjiang Sanbao Industry Group'社에 의해 개발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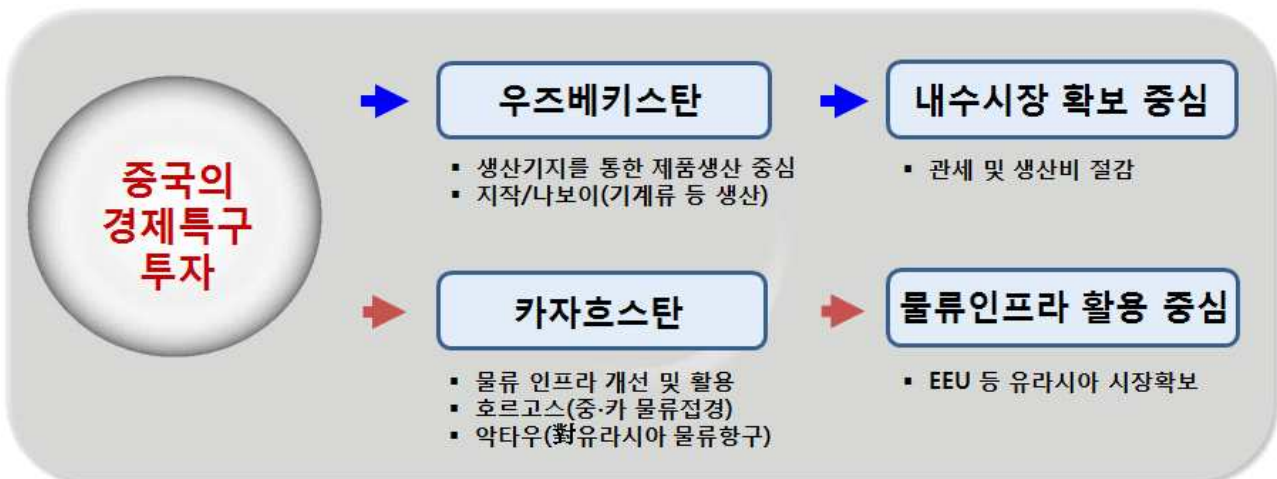
* 신장 산바오 그룹은 석유화학 등 엔지니어링 관련 설비제작, 물류창고 건설 및 운영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

- 단지 조성 완료 후 10-15개의 중국 제조기업 유치 예정이며 1차 총 투자 금액은 1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

□ 중국기업의 중앙아시아 경제특구 활용 진출전략

- 중국의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활용전략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 및 내수시장 확보 목적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의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 따라 완제품의 높은 관세회피를 위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
- 지작/나보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기계류 등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 생산위주로 투자

< 그림 9 >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특구 활용전략



* 자료: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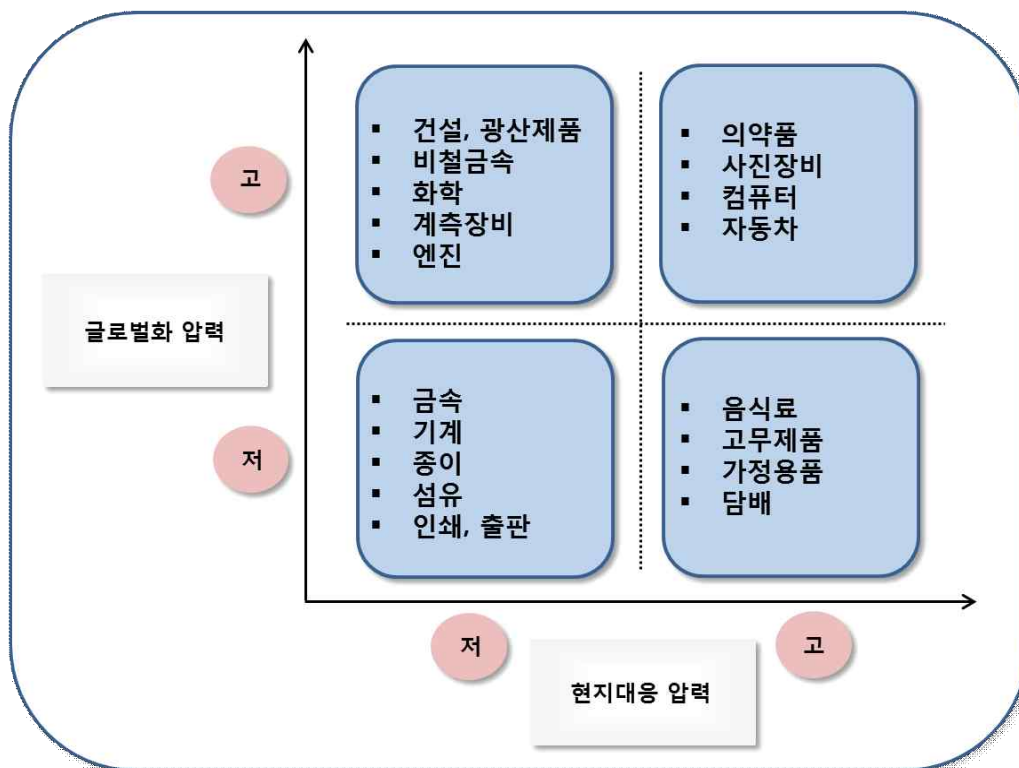
- 중국의 對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활용전략은 카자흐스탄 내수시장보다는 타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목적이 더 큼

-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카자흐스탄 내수시장 보다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 및 물류활용에 중점
- 비교적 대외 개방적인 카자흐스탄의 정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국으로 역내 무관세인 특성 활용
- 경제특구 내의 투자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 생산보다는 수출을 염두에 둔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
-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특구 활용전략은 국가별 특성 및 중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세부전략으로 개별기업들의 경제적 필요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
- 중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카자흐스탄의 기계장비 등과 같이 해당국의 사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의 정책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여기에 양국 기관을 통한 비즈니스 포럼 등으로 중국정부가 중앙아시아 특구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

□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과 전략

- 기업의 해외진출시 대체로 각 산업별 글로벌화 압력과 현지대응 압력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
- － 의약품, 사진장비, 컴퓨터, 자동차 등은 대체로 현지대응압력과 글로벌화 압력이 높은 산업군에 속함.

< 그림 10 >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에 따른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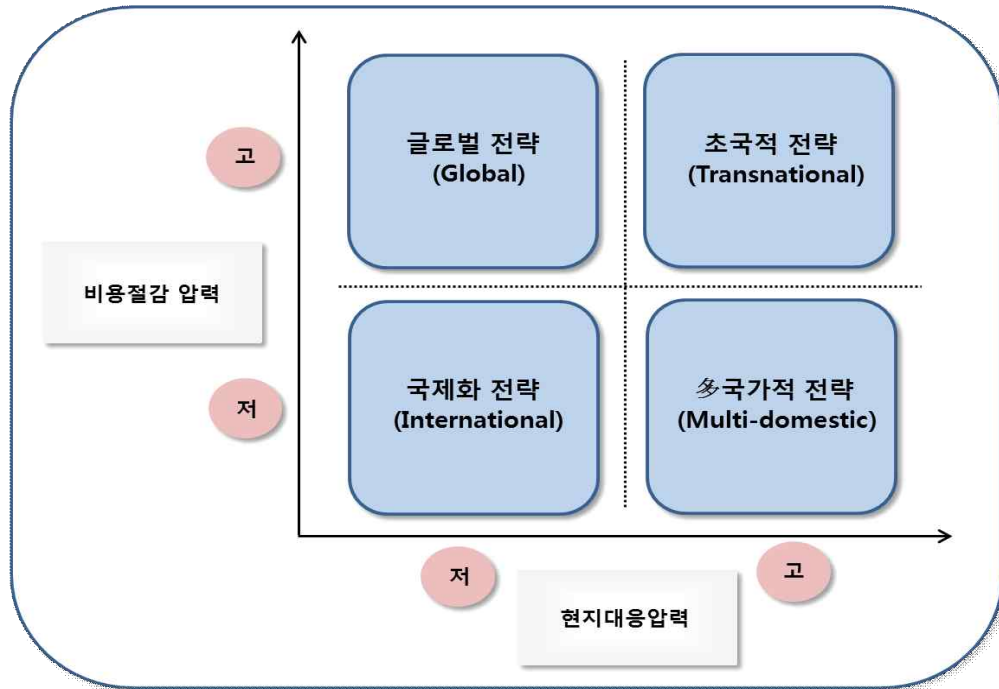
* 자료: Sumantra Ghoshal and Nitin Nohria, "Horses for Courses: Organizational Form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1993.

- － 반면, 건설, 광산제품, 비철금속, 화학, 계측장비, 엔진 등은 제품의 현지화에 대한 대응압력은 낮고, 글로벌화 압력이 높은 산업군

- 음식료, 고무제품, 가정용품, 담배 등의 산업군은 제품의 현지화에 대한 압력이 높으나 글로벌화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산업군
- 현지대응압력과 글로벌화 압력이 모두 낮은 산업군은 금속, 기계, 종이, 섬유, 인쇄, 출판 등의 산업군
 - * Ghoshal과 Nohria의 기준에 따르면, 글로벌화 압력이 높은 산업군은 대체로 기업 내부의 국제 자회사간 의존성이 높은 기업으로 기업의 전체매출에서 기업 내부매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
- 기업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해외진출은 크게 시장 추구형, 생산효율성 추구형, 자원 추구형으로 구분
 - 시장 추구형(market seeker) 해외진출은 제품 판매를 위한 신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해외진출
 - 생산효율성 추구형(production efficiency seeker) 해외진출은 생산성에 비해 생산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는 것
 - * 대체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투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자원 추구형(resource seeker) 해외진출은 각종 생산 원자재가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유형
 - * 대체로 자원 추구형 해외투자는 원재료의 획득, 생산 및 유통단계에 이르는 가치체계(value chain)을 통제하기 위한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형태를 포함
-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은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 압력과 현지화에 대한 대응압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로 구분 가능
 - 多국가적(Multi-national) 전략은 비용절감압력은 낮으나 제품에 대한 현지화 대응압력이 클 때 추진하며 소비재에서 많이 나타남.
 - 초국적(Transnational) 전략은 현지화 대응압력과 비용절감압력이 모두 높을 때의 전략으로 현지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현지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 추진

< 그림 11 > 기업의 국제경영전략



* 자료: Christopher Bartlett and Sumantra Ghoshal, 『Transnational Management』, 2006.

－ 국제화(International) 전략은 비용절감압력과 현지대응압력이 낮아 대체로 국내시장의 제품을 그대로 해외에 판매

* 글로벌 문화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 부각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국제화 전략의 의미 퇴색

－ 글로벌(Global) 전략은 현지대응압력이 낮으나 비용절감압력이 높아 제품표준화를 통해 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

* 同전략은 낮은 생산원가를 활용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추진에 적합

○ 對중양아시아 진출전략 시사점

－ 우즈베키스탄은 임금수준이 낮고 특구활용에 따른 제품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현지대응 압력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중심을 둔 多국가적 전략추진이 적합

- 카자흐스탄은 임금수준이 높아 기본적으로 비용절감 압력이 높은 제품군의 진출이 쉽지 않으나 경제특구의 비용절감 요인과 특화된 산업군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감소하고 현지시장에 대응하는 초국적 전략 부합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진출전략은 각 경제특구별 입지와 유치산업 특성에 따라 산업별 차별화된 고려 필요
-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서 기존의 자원 추구형 정책에서 확장된 시장 추구형 또는 생산효율성 추구형 투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 중심의 제품 현지화전략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국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내수시장이 형성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내수시장 형성
 - *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1600만 명, 키르기스스탄 약 560만 명, 타지키스탄 약 820만 명, 투르크메니스탄 약 520만 명 등
 - 우즈베키스탄의 생산가능 인구(15~59세)는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64.1%를 차지하며 15세 미만 인구도 28.5%로 비교적 젊은 층의 연령 비중이 높음²⁾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소득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도 확대
- 내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초기 시장진입이 어려우나 시장 내 경쟁이 적어 진입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가능
 -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완제품 수입관세가 높고 자국내 제품생산에 따른 장점부각

2)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초기진입이 쉽지 않으나 진입이 후 시장에서의 경쟁사가 비교적 적어 안정적인 사업운영 가능
- 현지화의 압력이 높은 가정용품 및 음식료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 확보 추진

○ 가정 및 생활용품 산업의 시장기회

-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지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위주의 가정 및 생활용품에 대한 생산수요 증가
- 수입대체산업화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고급제품의 시장형성은 더딘 반면, 수입대체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의 시장이 확대

《 생활용품 생산시장 현황 및 사례 》

○ 우즈베키스탄의 사출 플라스틱 생활용품 시장

- 현지 생활용품 생산기업 A사장은 “정부의 생산 장려정책으로 제품 생산에 대한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수요도 꾸준하다.”고 밝힘 (2015년 12월 현지 인터뷰)
- 플라스틱 사출 생활용품의 경우 생산되는 제품의 부피가 커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현지화에 대한 압력이 높으며 현지생산에 적합한 제품류
- 2016년 5월 수르길 가스·화학공장의 완공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플라스틱 원료 공급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플라스틱 제품 생산확대 기대

- 음식료 제품의 경우도 현지인의 기호가 많이 반영되는 제품군으로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생산 진출이 적합한 산업군임.

○ 지작 특별경제구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향후 성장이 유망한 지역으로 해당 산업 진출가능

– 지작 특별경제구역이 위치한 지작시는 인구가 많지 않으나 지리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제 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제품 현지화 및 판매에 적합한 조건을 구비

– 또한 경제특구가 위치한 지작 및 시르다리야(Syrdarya) 지역은 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광물 등이 풍부한 지역

– 사마르칸트 지역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태양광 설비 제조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ADB는 약 1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 완공할 계획

* 태양광 단지 조성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비중을 현재의 약 10%에서 2031년에는 21%까지 확대한다는 전략

– 지역 내 수요가 확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또는 사마르칸트 지역을 주요 수요로 하는 생활용품 생산은 유망 분야

○ 안그렌 특별경제구역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도시인 타쉬켄트와 인구밀집 지역인 페르가나 지역에 인접한 이점과 물류시스템을 활용

– 안그렌 특별경제구역은 최대 소비시장인 타쉬켄트와 인접해 있고 물류망을 통한 페르가나 등 인접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활용이 가능

– 안그렌 국제물류센터를 통해 특구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및 타 지역으로의 운송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생활용품의 생산 기지로의 활

용 적합

- 중국정부가 안그렌 특별경제구역 내의 화력발전소 현대화 작업을 시행 중으로 현대화 작업이 완료되는 2016년 말 ~ 2017년 초반에는 전력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

* 안그렌은 우즈베키스탄 내 3개 석탄광산(Angren, Shargun, Baisun)의 하나로 석탄매장이 풍부한 지역

- 나보이 특별경제구역은 다른 2개 경제특구와 달리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항공운송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 부합

- 주요 생산제품은 부피가 작아 항공운송에 적합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품이 적합

- 다른 특별경제구역과는 달리 제품 수요시장을 우즈베키스탄 국내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이나 육로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 구축 필요

- 나보이 경제특구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한국의 DK-Cosmetics와 우즈베키스탄의 Navoiyazot가 합작한 화장품 NB Cosmetics社 설립 사례가 있음.

* 동 기업은 연간 화장품 생산 개수가 약 350만 개에 달하는 등 경제특구를 활용한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기반 안정화 단계 진입

□ 카자흐스탄: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통한 수출연계 전략

- 카자흐스탄은 타 중앙아시아 국가대비 물류운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한 국가로 회원국 간 역내 제품교역에 무관세 적용

* EEU는 현재 5개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유라시아권 내에서 추

가적으로 회원확대가 가능

- 특히, 카자흐스탄은 EEU 가입국으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sub hub 역할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³⁾

< 표 9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성과지표(LPI): 2014년

구분	종합	통관	물류시설	국제수송	물류경쟁력	화물추적	정시성
카자흐스탄	2.70	2.33	2.38	2.68	2.72	2.83	3.24
타지키스탄	2.53	2.35	2.36	2.73	2.47	2.47	2.74
우즈베키스탄	2.39	1.80	2.01	2.23	2.37	2.87	3.08
투르크메니스탄	2.30	2.31	2.06	2.56	2.07	2.32	2.45
키르기스스탄	2.21	2.03	2.05	2.43	2.13	2.20	2.36

* 주: 5점 만점으로 지표가 높을수록 좋은 성과임을 나타냄.

* 자료: Wor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 카자흐스탄의 물류환경은 타 중앙아시아 국가 대비 우수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개선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대외수출에 적합한 환경개선 진행 중
 - * 중국은 이미 육상운송의 대륙 내 허브로 카자흐스탄을 전진기지화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자국을 연결하는 운송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 카자흐스탄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국통화가치 하락에 따라 달러표시 임금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 저가제품 생산에 부적합
-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고임금 수준의 국가이며 저임금을 활용한 저가의 제품 생산은 적합하지 않음.
- 2015년 4분기 기준 카자흐스탄의 월평균 임금은 136,094 텡게(tenge)

3) 박지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전략,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5-003*, 2015, pp. 52-54.

로⁴⁾ 자유변동환율제 채택이전의 환율로는 약 726달러(1달러=180탱게)에 달해 임금이 높은 편임.

* 자유변동환율제 채택으로 달러화 표시 임금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중국이나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의 활용전략은 제품 현지화를 기본으로 하되 ‘초국적(Transnational) 전략’을 고려할 필요

– 카자흐스탄의 높은 인건비 특성상 저가 상품의 생산과 표준화를 통한 획기적 제품생산비용 절감이 어려워, 지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추진하되 경제특구의 이점을 통해 비용절감 추진

– 카자흐스탄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인구 약 1,600만 명) 내수시장만을 목표로 한 제품현지화 전략보다는 EEU 시장을 염두에 둔 지역특화 상품 생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EEU 가입국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이 sub hub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르기스스탄 시장을 염두에 둔 제품적합

–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기업의 현지화는 경제특구를 통한 제품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현지화, EEU 시장을 염두에 둔 지역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을 위한 ▲제품 현지화의 두 가지를 추진하는 전략

○ 경제특구별 주요 특화가능 상품은 각 경제특구 지역별 임금 수준 및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

– 카자흐스탄 각 경제특구 소재 지역별 임금수준은 큰 차이가 나므로 지역별 고려 필요

– 경제특구 중, Astana-New City, Seaport Aktau, Innovation Technologies Park,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등의 4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평균임금 수준이 높음.

4)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по регионам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Agency of the Republic of the Kazakhstan on statistics.

- 망기스타우와 아티라우는 카자흐스탄의 대형 유전지대가 위치한 곳이며 유전개발관련 외국계 기업 등 임금이 높은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는 고임금 지역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진출 어려움.
- 또한 아스타나 시는 카자흐스탄의 수도로, 알마티 시는 경제중심지로 다른 지역 대비 고임금 지역

< 표 10 > 경제특구 소재 지역별 평균 임금수준

(단위: KZ 텡게)

특구명	특구 소재 지역	지역 평균임금(2015.4분기)
Astana-New City	아스타나 시	221,009
Seaport Aktau	망기스타우	236,372
Innovation Technologies Park	알마티 시	178,480
Ontustyk	남카자흐스탄	88,785
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logy Park	아티라우	254,178
Saryarka	카라간다	118,547
Pavlodar	파블로다르	119,663
Khorgos-Eastern Gates	알마티 주	95,781
Chemical Park Taraz	잠불	87,770

* 주 : 10개 경제특구 중 Burabay는 관광특구로 제외

* 자료: Agency of the Republic of the Kazakhstan on statistics

- 반면, Pavlodar, Khorgos-Eastern Gates, Chemical Park Taraz 등이 위치한 지역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노동인구 활용이 가능한 경제특구
- 현재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진출 산업가운데 가장 유망한 산업은 건설관련 장비·건축자재 관련 산업
-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사업이 향후 수 년 간 본

격화 될 것으로 보여 건설관련 장비 및 기계 제작 또는 건축자재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표 11 > 카자흐스탄 건축시장 전망: 2016-2022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축산업 규모(KZ Tbn)	3,122	3,598	4,064	4,555	5,060	5,599	6,143
연간 성장률(%)	5.1	5.8	5.9	6.6	6.4	6.4	5.7
GDP에서 비중(%)	6.8	7.0	7.1	7.2	7.3	7.3	7.4

* 자료: BMI Research, Industry and Construction Q1, 2016

- 카자흐스탄 건축 관련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두 배 가량 성장하며 연간 성장률은 2019년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스타나 시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특구 중 Astana-New City 경제특구 내의 건설관련 제조업 투자는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는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물류 중심 경제특구가 될 것으로 예상
-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는 물류 인프라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문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동 경제특구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유입의 관문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상품의 중국수출을 위한 주요 방편이 될 수 있음.
- 카자흐스탄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 대한 수출을 염두에 둔 제품 생산가능
- *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카자흐스탄 호르고스-이스턴 게이트 경제특구에 생산기반을 두고 양 시장을 모두 겨냥하는 전략이

유효

- 통계에 따르면, 신장위구르 자치구 도시 가구 1인당 지출에서 의약 및 의료 서비스 부문과 교통·통신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남.⁵⁾

< 표 12 > 신장위구르 자치구 도시가구 내 항목별 1인당 지출비중(%)

구분	2000년	2014년
음식료	36.4	34.5
의류	13.1	8.8
가정용품	9.3	4.6
의약 및 의료 서비스	7.5	9.7
교통·통신	7.5	13.7
문화·교육·여가활동	13.6	8.2
주거	7.8	19.2

* 자료: HKTDC Research, “Xinjiang: Market Profile,” 2016, p. 5.

- 의약품 및 의약장비 분야는 카자흐스탄 정부도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한 제품생산으로 카자흐스탄과 중국 신장지구 시장 모두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생산 가능
- 알마티 시 인근에 위치한 Innovation Technologies Park를 통해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 이외에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 주변 시장 공략 필요
- 카자흐스탄 남부에는 알마티와 침켄트 등 주요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생산된 제품의 기본적인 수요 뒷받침
- 알마티 지역은 특히 상업 중심지로 기업의 수요가 많아 IT 관련 제품의 생산에 적합하며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 등에 대한 수출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제품생산 필요

5) HKTDC Research, “Xinjiang: Market Profile,” 2016, p. 4-5.

< 참고 문헌 >

- 문헌 자료 -

- 박지원. (2014)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공업화전략: 자동차 산업의 사례분석.” 중소기업. 제 37권 제4호
- 박지원. (2015)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전략.”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5-003*
- 조정원. (2014) “우즈베키스탄-중국 합자기업 지자크 공업특구 태양열 온수기 공장.” Emerics, 주간이슈분석
- 한홍렬 외. (2015) *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artlett, C. and Ghoshal, S. (2006) *Transnational Management*
- BMI Research. (2016) “Industry Forecast: Industry and Construction- Q1 2016”
- Ghoshal, S. and Nohria. N. (1993) “Horses for Courses: Organizational Form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Sloan Management Review*.
- HKTDC Research. (2016) “Xinjiang: Market Profile.”
- IMF. (1998) “Republic of Uzbekist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8/116*.
- Kaznex Invest. “Kazakhstan: Special Economic Zones.”
- MacDonald, S. (2012) “Economic Policy and Cotton in Uzbekistan.” USDA, *A Report from the Economic Research Service*.
- The World Bank. (2008)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인터넷 자료 -

- Agency of the Republic of the Kazakhstan on statistics
- Alstom社 홈페이지
- Angren 경제특구 홈페이지
- KITA
- Navoi Airport 홈페이지
- Tengri News
- The Heritage Found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or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Бай терек 홈페이지

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홈페이지

Нац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홈페이지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Казахстана 홈페이지

Капитал

Транс-Экспресс Казакстан

작성자

- ◆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전문위원
- ◆ 타슈켄트 무역관 채병수 과장
- ◆ 알마티 무역관 이재원 과장

Global Strategy Report 16-003

경제특구를 활용한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65-1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